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Eroticism)적 표현에 관한 연구

—초현실주의, 팝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김 명 주* · 김 문 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Eroticism and Modern Costume

—Surrealism, Pop Art, Post Modernism—

Myung Ju Kim · Moon Sook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Woman's University

(1994. 4.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n the art the basis of originality appeared on the fashion design and investigating the erotic expression appeared on the ornaments how art -surrealism, pop art, post moderninism-formularize in the modern fashion.

This study about the expression of eroticism and modren costume, through the source of pictures contained in art books and mode magazine and documents investingation has resulted as follows:

First, the formality and contents that related art and fashion shows us a various aspect. That based on modeled characteristic and various technique of the art.

Second, the expression of eroticism in fashion expressed differently in style, material and expression method that is more strongly, sometimes metaphorically with spirit of the time's.

Third, the expression of eroticism in fashion whether direct way or symbolic way has appeared as partial exposure of the body. It is appearing to the course that can display individuality of each person over the taboo of the part and the previous limitation of fashion.

I. 서 론

인간 자체를 직접 소재로 하여 옷감이라는 재료와의 조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조형성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패션은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술 즉, 각 미술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패션과 인간과의 관계를 미술사적 측면 즉 순수미술이 복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또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의 수많은 이즘(ism)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성을 주제로 택하여 복식에 무의식적

욕망을 표현해 왔으며, 의복의 착용동기가 단순히 기능적이라는 개념이 바뀌면서, 인간은 자기표현으로서 성적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 시대의 패션 변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순수미술과 복식과의 관계를 특히 미술사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현대복식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식과 미술사조에 관한 이론 및 복식에서의 초현실주의, 팝아트,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 즉, 에로티시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된 것을 주로하여 학위논문과 외국저널, 일반서적,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문헌을 중심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초현실주의, 팝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패션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중적인 잡지인 Vogue지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패션잡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II.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이란 그리스어로 에로스(ero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에로스란 말은 성애(性愛), 즉 육체적인 의미를 더욱 포함하지만 처음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미는, 상식이나 이성을 벗어난 행동, 가령 심하게 노했을 때나 사람에게 눈이 어두워져 저지르는 일들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神적인 힘 때문이라고 보았고, 이 초절적인 힘의 하나에 에로스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¹⁾.

이렇듯 에로티시즘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였으나 근대에 와서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성애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로티시즘은 성적인 것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환기 내지는 본래 성과 무관한 목적을 지닌 기능에까지 성기애를 확대한 것이다. 즉, 감각, 지각, 운동적 쾌락의 의식적 개발로 성애로부터 성을 초월해 세계의 존재에 깊이 관련하려는 지각, 인식을 구조화하는 강한 성의 충동이다²⁾.

에로티시즘은 현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적 가

치관과 더불어 에로티시즘의 표현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인간의 누드(node), 특히 여성의 누드는 제일의 에로틱한 이미지로서 모든 문명과 역사상 모든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누드는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의 상태(naked)란 뜻과는 구별되어 있으며, 균형잡힌 건강하고 자신에 가득한 육체, 즉 재구성된 육체를 의미한다³⁾.

누드화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인들이 창안한 예술형식으로 그리스인들은 누드를 통해 모든 완전한 美로 가는 통로를 열었고, 인간자신을 神처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누드에 완벽성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세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누드를 종교와 결부시켜 생각하여 누드에 대한 아름다움 보다는 추악하고 타락한 죄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은 추악한 육체를 통하여 종교적 열망을 승화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에 들어서게 되면 예술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누드가 이상미의 표준으로 재등장한다. 근대에 이르러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이성간의 육체적 교섭과 자기자신의 육체적인 것의 나르시즘(narcism)적 찬미를 복합시키게 되었고, 여성의 육체를 그 전에 표현되었던 창조물이나 神 대신 잉태, 생식, 풍요의 상징으로 여성의 누드를 표현하게 된다⁴⁾.

현대에 이르러 에로티시즘은 이제까지의 누드의 이상화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인간성 회복의 성적매력 표현으로서 어느시기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에서 쏟아지는 언어의 흐름과 각성된 에로틱한 욕망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고 성적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들의 에로티시즘은 세계를 향한 공격에의 욕망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이와같은 에로티시즘의 변천은 1960년대 팝 아트에 들어와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가지고 상업주의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이면서 기존체제와 도덕적 관념에 대해 반발하고 성의 개방과 대중화를 초래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전반에 걸쳐 풍미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인간은 자기의 성적 매력을 의복을 통해 나타내려고 한다. 짧은 치마를 입거나, 몸에 꼭 붙는 옷을 입는 것들은 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지각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이다⁵⁾.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적 감정이나 충동에 항상 성적

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겔은 프로이드의 ‘인간의 원초아적 본능중 성적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이론을 인간의 의복 착용동기의 상반된 양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의복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리며 정숙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나 오히려 은폐된 인체부위에 더욱 매력과 관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성적인 자아로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나 더욱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속성이 복식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의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이자 욕구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중요한 착용동기가 되는 것

이다⁶⁾.

III. 미술사조의 조명

각 미술사조에 따른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미술사조의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미술사조의 형성배경, 표현기법,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초현실주의, 팝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교

미술사조	형성배경	표현기법	일반적인 특징	대표작가
초현실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대전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인간성 상실 ○ 아카데미 전통의 붕괴 ○ 다다이즘의 등장과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기술법(Automaticism) ○ 위치전환법(Depaysement) ○ 오브제(objet)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동적이며 동적인 분위기 ○ 형상의 제한을 거부하며 본질만을 추구 ○ 묘사적이며 설명적인 성향이 강하다. ○ 이성이나 미학적 규제, 도덕적 편념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는 직접적인 사고와 표현방식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사고를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vador Dali ○ Marcel Duchamp ○ Max Ernst ○ Hans Arp ○ Joan Miro ○ Andre Masson ○ Pablo Picasso
팝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종전후 소비사회의 도래-물질적 풍요에 따라 쾌락주의적 세계관이 지배 ○ 새로운 매스미디어와 인쇄술 등의 발달로 대중문화시대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스크린(Silk-screen)기법-사진적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해프닝(Happening)-인식되지 않은 우연한 행위와 사건들의 atas블라주 ○ 사실적 표현 -적선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적 특성 -의식적으로 예술작품의 영원성을 포기한 예술로서 고든 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 주제의 친근성 ○ 매체범위의 확대 ○ 대상의 직설적 현존 -종전의 예술이 내포하던 사회적 발언이나 의미 즉, 상징을 거부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현실을 찾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hard Hamilton ○ Willem de Kooning ○ Andy Warhol ○ Robert Rauschenberg ○ Jim Dine ○ Tom Wesselmann ○ Allen Jones
포스트모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다양화와 복잡화 ○ 고유문화의 추구하고 역사적 연속성의 부여 ○ 인간중심 사회의 가치관 변화 ○ 모더니즘의 파산선고와 신념의 상징, 이데올로기의 붕괴에 대한 논의가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주(Collage)기법 -상이한 여러시대 양식의 혼용과 절충 ○ 상징적 표현과 암시적 은유-자연, 인간 및 모든 사물 ○ 매너리즘(Mannerism)적 요소의 사용-부분생략, 과장도치, 중첩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주의적 특성 -과거의 인용과 차용, 대중매체의 사용과 접목 ○ 다양한 지역적 특성 ○ 장르의식이 붕괴되고 혼합되는 양상 ○ 대중문화에의 관심 강화 ○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인위적 형식 구분 배제 ○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친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lian Schnabel ○ Daved Salle ○ Eric Fischl ○ Robert Longo ○ Robert Venturi ○ Charles W. Moore ○ Charles Jencks

IV. 현대복식의 에로틱 表現

1. 초현실주의 복식

복식의 초현실주의 양식은 1930년대에 생성된 후 1980년대에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현되었다.

복식의 초현실주의 양식이란 형식에 있어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그들의 일상적인 위치가 아닌 복식으로 이동을 통해 이성적인 세계의 재현이 아닌 반이성적인 내적표현을 시도하며, 기존의 관념들과의 상충을 일으켜 사용된 소재나 복식 그 자체에 대한 다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⁷⁾.

오브제의 종류와 표현기법에 따른 초현실주의 복식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초현실주의 복식이 다루는 이미지의 특성 중 에로티시즘은 성이 그들의 중요한 테마인 만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에로티시즘적 표현을

<표 2> 초현실주의 복식의 형식과 내용

형식	내용
신체부위의 응용	이중적 의미로서의 눈, 가장 관능적인 심볼로서의 입술, 감춤과 드러남의 역설적 표현으로서의 가슴, 그리고 사람얼굴 등과 같은 신체의 각 부위가 독립되어 복식에 표현되는 기법을 말한다.
자연물의 응용	자연의 소재가 복식으로 이동하여 표현되는 기법. 주로 해양생물(불고기, 조개, 가재등)과 새, 나무, 꽃, 나비 등으로 자연물의 속성과 여성을 동일시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물의 은유와 변형	복식과 관계가 적은 일상 용품들(악기, 컵, 시계, 의자, 옷장서랍, 가위, 열쇠 등)이 복식 위에 배열하여 우연한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성의 신체는 악기(현악기)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여김.
위치의 변경과 착시	의복의 앞과 뒤가 바뀌거나 속욕이 겹옷으로 표현된 경우, 앞으로 위치시킨 버슬 등과 같이 복식 품목 자체가 이동하는 기법. 하나의 이미지가 이중적 기능을 하도록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여 환영을 만들어 내려는 기법이다.

동하여 그동안 사회적 인습이나 합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억눌려 왔던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된 정신세계인 환상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⁸⁾.

입술은 초현실주의의 가장 관능적인 심볼로서 복식에 사용되었다. Elsa Schiaparelli는 pockets 부분에 입술모양의 아플리케(aplique)를 단 coctail suit를 디자인하여⁹⁾ 입술을 장난기 있고 에로틱한 측면에서 보았으며 Yves Saint Laurent은 1971년 코트 디자인에서 입술모양에 금색의 담배를 끼워 표현¹⁰⁾하기도 하였고, 1979년 Givenchy의 입술자켓¹¹⁾과 1992년 Nicole Miller의 입술 드레스[그림 1] 등은 소재로서 입술을 복식에 사용한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복에 있어서 '가슴'은 중요한 테마로, 역사상 가장 에로틱한 부위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현실주의에서의 가슴 또한, 감추어져 있는 신체를 표면으로 드러내어 은폐와 감춤의 역설적 관계를 드러내하고자 많이 사용된 부위로서 의복밑에 놓여져 있는 신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Yves Saint Laurent은 가슴과 배 부분만을 금속으로 형을 띠 그 위치에 입혔으며¹²⁾, Thierry Mugler의 바닷물 느낌을 주



[그림 1] Nicole Miller, (Collections '92'93 a/w, N.Y -12)



[그림 2] Jean-Paul Gaultier, (Fashion & Surrealism, p.69)



[그림 3] Christian Lacroix, (Fashion & Surrealism, p.24)

형으로 든 형태¹³⁾나 John Calliano의 청동조각처럼 가슴부위를 처리해서 가슴을 강조한 것¹⁴⁾ 등은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Jean-Paul Gaultier는 벨벳 원추모양의 가슴을 걸옷 위로 돌출시켜 장난기 있는 성적충동을 유발시키고 있다[그림 2].

이와같은 것은 이제까지 감추어져만 있던 가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자극으로 비합리적인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Elsa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복식의 선두자로서 기존예술의 미적 개념을 부정하고 초현실적 사상에 의거하여 새로운 감각을 추구한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1927년 trompe-loeil 스웨터를 데뷔작품으로 하여 Dalí의 그로테스크(grotesque)하고 에로티시즘적인 그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속의 오브제를 그대로 의상에 모방하여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시켰다.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인체의 성적 통찰력을 보여 주었다는데서 예술사적 큰 의미를 갖고 있는 Dalí의 “The City of Drawers”¹⁵⁾는 Schiaparelli의 “Desk Suit”으로¹⁶⁾ 재현되었는데 이는 서랍을 포켓으로 변형 디자인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도

Freud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가슴부분의 서랍에는 열쇠구멍이 있어 이것 역시 Freud식의 명백한 여성적 상징임을 증명하고 있다¹⁷⁾.

서랍 외에도 복식에 쓰여진 악기같은 도구는 실제생활과 마음속의 세계사이의 상호 관련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초현실주의적 은유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초현실주의의 상식속에서 악기는 여성의 신체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져¹⁸⁾ 1985년 Christian Lacroix의 바이올린 드레스처럼 [그림 3] 악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관습적으로 고정된 의복의 위치가 바뀌어 속육이 겉옷화되어 표현된 의복에서 또한 에로틱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옷의 받침대인 빠니에가 걸으로 표현된 작품이나[그림 4] 체형보정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파운데이션을 겉옷화한 롤셋 드레스¹⁹⁾ 등이 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 복식은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혼한 생활속의 소재로 미의 주제를 찾아서 위치전환이나 재배열로 의상에서의 체치감과 극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²⁰⁾. 또한, 에로티시즘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회적 인습이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억눌려 왔던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재치있고 기발하게 포출해 내어 상상의 세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림 4] Chantal Thomas, (Collections '91'02 a/w Paris-19)

2. 팝 아트 복식

팝 아트 시대로서의 60년대 패션은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의 경향과 함께 젊은 층을 포함한 보다 넓은 층을 대상으로 패션의 산업화를 촉진시켜 패션의 대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2차 대전 이후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층의 경제권에의 참여로 상류층이나 엘리트층이 전유하였던 스타일이나 상징성을 모방, 조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 특유의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를 탄생시켜²¹⁾, 패션 역사상 최초로 젊은이들이 기성인들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유층을 위한 오뜨 꾸뛰르의 기성복은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젊은이들이 쉽게 취득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의상인 영 패션(Young Fashion)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1960년대말 중산층 지식계급이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한 일부 젊은층이 머리모양, 복장, 관습 등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변화시킨 히피룩(Hippies Lock), 기분나쁜 메이크업(make-up)이나 개의 목 끈, 안전핀, 면도기 등을 악세서리로 이용하여 반항적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핑크룩

(Punk Look)²²⁾, 그리고 신분이나 나이까지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애용된 블루진(Blue Jean)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60년대 미니스커트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잘 어울이고 미니 스커트가 주는 감각이 우주 개척시대의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에 적합하여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어필이 잘 되었다.

미니 스커트의 미학은 새로운 균형에 의한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릎위를 노출한 미니의 형태는 새로운 에보티시즘의 표현이며, 또한 웨이스트 라인의 엄격한 규제에서 완전히 여성을 해방시킨 새로운 기하학적 라인의 시작이었다. 짧아진 스커트의 길이는 자연적으로 팔을 노출시키는 조형 구조의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창출하게 되었다[그림 5].



[그림 5] Krizia, (Vogue Fashion-H of 20th F, p.88)

또한, 팝 아트가 예술성 자체의 의미보다는 대중 예술 매체로서 대중을 위해 디자인된 대중성이 있어야 하듯이 1960년대 대중의 패션은 이전과 같이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서 인간을 평가하기 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경향으로서 패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복식 소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탈 페브릭(탈 fabric)의 경향이 가중되어 인간의 제2의 피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표 3> 팝 아트 복식의 형식과 내용

형식	내용
패션의 대중성 강화 및 다양성	<p>영패션</p> <p>2차대전 이후 급격히 높아진 출산율의 결과 청소년으로 성장한 이들 전후세대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이들도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p> <p>이들은 1960년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령집단으로 등장하여 영파워(Young Power)를 형성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 맞게 쉽게 취득하고 소비할 수 있고, 유포와 체치가 있는 그들만의 의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p> <p>블루진(Blue Jean), 펑크룩(Punk Look), 히피 룩(Hippies Look), 미니스커트(Mini Skirt)</p>
	<p>소재의 다양화</p> <p>종래의 상류층만을 위한 고가 고질의 패션 디자인이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과 합성 섬유, 비닐, 가죽, 플라스틱, 유리 등의 발달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될 수 있게 되었다.</p> <p>육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여기고 시드루(see-through)와 같은 옷감 소재를 사용하여 육체와의 새로운 패션을 창출하고 있다.</p>

이상과 같은 팝 아트 복식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소비문화를 사랑하고 도시와 기술의 문화를 애호하는데서 시작된 팝 아트는 섹스와 매력을 강조하여 비치는(see-through) 천으로 인체와 젊음을 개방하고, 노출된 신체의 윤곽선으로 팝 아트에서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탄생시키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육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여기고 패션에 직접 비닐, 플라스틱, 알미늄, 금속, 셀로판과 같은 특이한 재료를 이용하여 복식 조형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하고 노출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복식에 받아들이는 수단이 되었다[그림 6].

6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마릴린 먼로가 자주 등장한다. 그녀의 얼굴은 실재적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각적 형식이라기 보다는 섹스의 심볼로서 복식에 반영되어 있다[그림 7].



[그림 6] Thierry Mugler, (Gap '89 s/s, Paris-8)



[그림 7] Gianni Versace, (Collections '94, p. 44)

이미 초현실주의 복식에서 나타났던 속옷 디자인의 일반 복식으로의 도입은 팝 아트에 와서 기존의 속옷을 하나의 패션의 주체로서 더욱 부각시켜 팝 패션의 에로티시즘 표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62년 Yves Saint Laurent의 흰색 새틴 브라지어 드레스²³⁾와 1987년 Jean-Paul Gaultier의 작품들^{24~26)}은 미니스커트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생활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이다.

이와같이, 팝 패션의 에로티시즘은 변화되는 시대와 생활에 따른 인간의 자유에의 의지가 복식에 직접적으로 도입되어 현대 복식에까지 디자인의 영감을 불어넣는 요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통속적인 주제, 사람과 성을 통하여 진실된 인간존재의 참모습을 그들 작품속에 비인간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구화된 성과 상업화된 성 표현으로 진정한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환기시켜 준다.

3.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

1981년부터 급격하게 건축이나 디자인, 미술분야에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80년대 주목되는 디자인 개념(Concept)으로써 현대 인테리어, 패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고정된 종래의 디자인 개념을 깨뜨리고 현대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의 추세를 따라 특별히 유행한 스타일이 없이 여러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은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한 감각의 융합으로써 클래식시즘과 모더니즘, 아방가르드와 노스탈자의 융합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며, 동양과 서양, 클래식과 전위, 호화 찬란한 드레스

대신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거리 패션이 등장했고, 고객은 상류사회에서 젊은대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²⁷⁾.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식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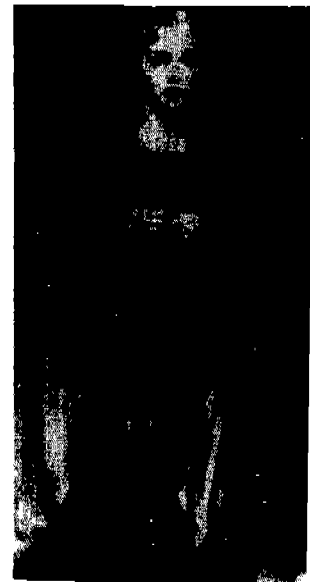
여성복식에 있어 비중있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로티시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한 전통양식인 바디 콘셔스(Body Concious)스타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비치는 천을 사용하여 섹시한 여성미의 노출을 강조한 것이 있다. 포스트 모던에서의 see-through는 노브라의 안티 모드(Anti Mode)적인 팝 아트와는 다르게 재현되고 있다. 즉, 속이 훤히 비춰보이는 얇은 옷을 여러겹 입는 방식으로 색상, 재질, 소재 등을 자유롭게 조화시켜 재료와 구성법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섹시한 여성미를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8]. 이는 과거처럼 남성을 의식한 의상이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즐기고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을 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 옛것에 대한 향수에 따라 시대·문화를 초월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복고는 크게 그리스와

<표 4>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형식과 내용²⁸⁾

형식	내용
역사성	모더니즘의 문 역사성에 반발한 역사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 역사적인 요소인 장식성, 낭만성, 페미니즘, 클래식시즘, 아방가르드등 모든것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토속성	포착적이고 민족적인 요소의 도입 및 절충이다. 동양이나 아프리카 등의 민족복의 응용과 재해석을 통하여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이나 인간 본능에의 향유라 할 수 있다.
상징성 및 전위성	상징적이며 전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배설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전위적으로 표현. 자연, 핑크 룩, 이콜로지 룩, 팝 룩 등의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어 상이하고 복잡하게 나타남으로써 다원주의, 복합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그림 8] Karl Lagerfeld, (Fashion Show '92'93 a/w, p.421)



[그림 9] Gapucci, (Vogue Fashion-H fo 20th F, p. 369)



[그림 10] Martin Sitbon, (Collections '92'93 a/w, Paris-15)

로마시대의 고전적인 스타일의 재현, 전원적인 주제의 재현, 중세에서 그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에 입혀진 의상의 재현을 들 수 있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고전적 의상 부활로서는 이집트 여성들이 직접 노출된 적갈색 피부와 백색의상과의 조화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것 같은 의상²⁸⁾과, 실크 저지 토가 드레스[그림 9]가 있으며 드레퍼리가 잘 생기는 얇은 옷감의 가슴 아래부분을 조여 천 사이로 빠져 나오는 유방³⁰⁾과, 조여 맨 가슴부분을 속이 보이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가슴을 강조한 것³¹⁾ 등은 관능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 고전의상의 특징은 장방형의 천을 그대로 인체에 두르거나 간사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드레이프 형으로써 복식을 통하여 그들의 자연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세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의 복식은 인체미를 인위적으로 드러내고자 다아트나 솔기, 디자인선 등의 구조적 측면이 강한 복식형태가 그 특징이다³²⁾.

이런 복식형태로는 전통적인 크리놀린 스타일을 다소 생략적으로 표현한 것³³⁻³⁴⁾으로써 스커트 앞자락을 짧게하여 앞으로 드러나는 다리와 뒤의 긴 트레인을 강조한 것이 있으며, 평상복에 있어 부분적으로 벤틀



[그림 11] Hanae Mori, (VoguFashion-H 20th F, p. 376)

의 형태를 응용한 것³⁵⁾, 검정색 레이스로 바디 콘서트 스타일에 힘을 마친 공작의 우아한 날개 꼬리³⁶⁾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들이 있다. [그림 10]은 비

슬 스타일 장식을 가진 스커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과장된 인체미를 보이던 르네상스 시기 여성의 목둘레 장식으로 상류층 여성의 계급 표시였던 러프(ruff)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되고 있다.

가슴부분을 노출시킨 디바이드 러프(divided ruff)를 입음으로써 에로틱한 요소를 나타내던 것이 얇고 속이 비치는 소재로 칼라부분과 소매 끝 부분에 러프를 잡아³⁷⁾ 색시하면서 낭만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으며, 화려한 직물로 여성적임을 더욱 강조한 형태나 원시적이고 생태학적인 동물 프린트의 색시함은[그림 11]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매력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또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목과 가슴의 화려한 장식³⁸⁻⁴⁰⁾은 대담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서리를 사용해 여성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나 초현실주의, 팝 아트 등의 에로틱한 요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색시 전위적인 스타일(Sexy Avant-Grade Style)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왕성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⁴¹⁻⁴⁵⁾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미술사조와 복식에 표현된 에로티시즘과의 상관관계

복식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은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기법중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복식으로 위치전환시키는 기법(Depaysment)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신체부위, 자연물, 일상사물 등의 감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그들의 일상적인 위치가 아닌 복식으로의 이동을 통해 복식의 기존 관념에 상반되는 역설적인 내용을 도모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적 표현 또한 여성적 상징의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복식으로 위치전환하여 비합리적이며 억압되어 왔던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위치전환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유미하게 하는 기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에로티시즘적 표현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로 향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팝 아트 복식은 여성해방 운동, 우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주 개척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에 적합한 복식, 즉 미니스커트(mini

-skirt)를 등장시켰다. 우주시대와 발을 맞추어 길이가 짧아진 mini-skirt는 스피드시대의 감각을 잘 표현해준 것으로 일반에게 쉽게 대중화될 수 있었다. 무릎 위를 드러내는 대담한 노출의 미니스커트는 기존의 엄격한 복식조형에서 여성을 완전히 해방시킨 새로운 기하학적 라인의 시작으로 형태면에서 단순하고 색채면에서 강렬한 60년대의 패션을 대표하는 것으로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다⁴⁶⁾.

팝 패션은 직물산업의 기술개발로 특이한 합성섬유, 플라스틱, 비닐, 가죽, 셀로판, 금속, 유리 그리고 몸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시드루(see-through) 소재가 나오는 등, 의복재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see-through 소재를 통해 노출된 신체의 윤곽선으로 자연스러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고, 이제까지 복식의 소재로는 쓰이지 않던 것이 사용되어 육체와의 새로운 패션을 창출하였다⁴⁷⁾.

이러한 획기적인 노출의 경향은 복식조형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를 복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시도으로써 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특징은 라인이나 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행을 쫓는 스타일보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위주로 독특한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특별히 유행한 스타일이 없고 여러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⁸⁾. 즉, 과거 유행하였던 다채로운 스타일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콜라주(collage) 기법을 통하여 절충, 혼합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드레이퍼리(Drapery)로 인위적인 통제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인체미를 드러낸 것, 크리놀린(Crinolin)과 버슬(Bustle) 스타일의 도입으로 여체를 왜곡되게 은폐시키거나 몰셋으로 인위적으로 과장된 인체미를 표현한 것 같은 것은 더욱 에로티시즘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고유문화의 추구하고 역사적 연속성 부여라는 시대적 배경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식에 나타난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연, 인간 및 모든 사물의 상징적 표현과 암시적 은유의 기법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상징적이고 전위적인 표현, 각 내용을 포함하는 보티브의 장식적 사용방법으로 나타나 초현실주의, 팝 아트의 에로틱한 요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색시 전위적인 스타일(Sexy Avant-Garde Style)로 표현되

<표 5> 초현실주의, 팝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

미술사조	시대적 배경	표현기법	패션의 특징	에로티시즘적 표현	대표작가
초현실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도덕적,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 ○1930년 경제공황과 대량 실업, 정치적 긴장 ○노동운동 발생 -직업여성의 가정으로의 회귀 ○예술의 대중화 -교통, 통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 소재의 위치전환기법 -신체부위, 자연물의 복식의 이동 -일상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의 변경과 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의 사용 ○복식의 기존 관념에 상반되는 역설적인 형식이나 내용을 도모 ○환상적인 이미지의 창조 ○장신구 디자인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적 상징의 의미를 지닌 소재(입술, 가슴, 악기, 나무, 가재등)들을 복식으로 위치 전환하여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을 자극한다. ○감각 상징적 의미론 지닌 소재를 위치전환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음미하게 한다. (속유의 겹옷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Elsa Schiaparelli ○Karl Lagerfeld ○St. Laurent ○Christian Lacroix ○Dolin Draitsas
팝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사회와 대중문화 ○여성해방운동 ○우주시대의 개막 ○히피문화의 전개 ○청년문화의 탄생 ○직물산업의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크스크린기법 (Silkscreen) ○패치워크(Patchwork)나 프린팅(Printing) ○그라피토(Graffito)와 레터링(Lett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패션(Young Fashion) -미니스커트(Mini Skirt)의 출현과 신체의 노출 -패츠의 등장과 유니섹스(Unisex)복장 -히피(hippies)패션 ○소재, 문양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릎위를 노출한 미니스타일로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표현 ○섹시심볼의 복식에 반영-미틸린 먼로의 섹시스타일(Sexy Style) ○Non Fabric(플라스틱, 비닐, 가죽, 셀로판, 금속, 유리 등)과 같은 새로운 옷감소재를 사용하여 육체를 하나의 오브제(objet)로 여김 시드루(see-through) 소재를 이용한 노출된 신체의 윤곽선으로 자연스러운 에로티시즘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dre Correges ○Paco Rabbane ○J.P.Gaultier ○Thierry Mugler ○St. Laurent
포스트모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문화 추구와 역사적 연속성 부여 ○직물, 계단, 분체 악세사리에 관한 지식의 신장 ○여성의 신분상승 ○합리성, 기능세일주의에서 탈피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Colage)기법 -절충, 혼합적 경향 ○상징적이고 전위적인 표현 -은유, 의인화등 ○장식적 기법 -각 내용을 포함하는 모티브의 장식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유행하였던 스타일의 재현 ○다채로운 스타일의 혼재 -자연, 에콜로지, 팝, 핑크 등 ○용도의 다양화와 개성화 ○장신구, 모자, 신발, 화장품 등의 발달 ○라인이나 록의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드루(see-through)와 드레이퍼리(Drapery)로 인위적인 통체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인체미분 드러냄-Drapery Style. Layerd Style 아름다운 장식이나 빠니에(Panier)로서 여체를 왜곡되게 은폐시키거나 콜셋으로 인위적으로 과장된 인체미를 표현, 더욱 에로티시즘을 부각 -Crinolin style, Bustle style ○초현실주의, 팝아트의 에로틱한 요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섹시 전위적인 스타일(Sexy Avant-Garde Style)로 표현 ○화려한 장식으로 여성미를 더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tony Price ○Alaia ○Karl Lagerfeld ○J.P.Gaultier ○Emanuel Ungaro ○Thierry Mugler ○Kenzo

고 있다.

지금까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보면 어떤 시대이건 몸의 일부가 노출되어 왔다.

초현실주의, 팝 아트,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 또한, 각각의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표현기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서 신체를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에로틱한 복식에서는 소재면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초현실주의 복식에 있어서, 상징적 소재의 위치전환기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던 것이 팝 패션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옷감 소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에로티시즘의 직접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 5를 참조할 것>

VI. 결 론

현대 패션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근거를 예술양식, 특히 각 미술사조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다양한 기법에 두고 그간 거론되어졌던 패션 디자인과 미술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는 미술양식에 패션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술사조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시대의 패션 변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순수 미술-초현실주의, 팝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 복식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었는가를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적 표현을 중심으로 알아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 팝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식이 접목되어진 형식과 내용은 각 양식의 조형상의 특징이나 다양한 기법에 근거를 두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적 표현 또한 스타일, 소재, 표현기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함께 인간의 모든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다 강하게,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직접적인 방법이건 상징적인 방법이건 간에 신체 일부분의 노출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신체의 전체모습이 패션의 대상이 되면서 과거 복식에서 나타내던 은근하고 상징적인 에로티시즘이 오늘날은 적나라한 노출과 함께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홍사중, "성적인간", 서울: 태극출판사, 1977, p.21~25.
- 2) 원유상, "근대 서양회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81, p.21.
- 3) 이흥주, "Pop Art에 나타난 Eroticism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1990, p.9.
- 4) 이흥주, Op. Cit., p.9~10.
- 5) Nass, G, Libby, R. & Fisher, M, % "Sexual Choices", Monterey: California:Wadworth Health Science. 1984, p.15.
- 6) 김민자, "패션의 에로티시즘", 멋 : 1991년 12월호, p. 158.
- 7) 최윤미,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No. 1, 1993, p. 147.
- 8) 장동립, "초현실주의 예술의 조형성과 Schiaparelli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 Vol. 17: No. 1, 1993, p.147.
- 9) Elsa Schiaparelli, Women of Fashion, p. 64.
- 10) St. Laurent, Fasthion & Surrealism, p. 86.
- 11) Hubert de Givenchy, Fashion & Surrealism, p. 99.
- 12) St. Laurent, Yves Saint Laurent, p. 88.
- 13) Thierry Mugler, Fashion Preview '90 s/s.
- 14) John Galliano, Collezioni '90 s/s, p. 153.
- 15) Salvador Dali, Fashion & Surrealism, p. 120.
- 16) Elsa Schiaparelli, Fashion & Surrealism, p. 118.
- 17) 오진경, "Salvador Dali의 편집광적 비판방법에 대한 연구", dlghkdueo tjrtkshsans, 1983, p. 46.
- 18) 김윤민, "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1, p. 26.
- 19) Jean-Paul Gaultier, Fashion & Surrealism, p. 116.
- 20) 최윤미, "복식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1, p. 66-68.
- 21)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1, p. 45.
- 22)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5, p. 278.
- 23) St. Laurent, Vogue Fashion-H of 20th F, p. 270
- 24) Jean Paul Gaultier, Gap '89 '88 a/w, p. 25.
- 25) Jean Paul Gaultier, Preta Porter '87 '88 a/w, p. 25.
- 26) Jean Paul Gaultier, Preta Porter '87 '88 a/w, p.25.
- 27) 노부유키 오토, "디자인과 생산, 유통의 3박자", p. 239.

- 28) 락명희, Op. Cit., p. 11.
- 29) Nina Ricci, Haute Couture '92, p. 20.
- 30) Lanvin, Collezioni '90, p. 20.
- 31) Hiroko Koshino, Collezioni '90, p. 133.
- 32) 김민자, “옛날은 어떻게 다시 오는가?”, 멋 : 1991년 10월호, p. 92~93.
- 33) Lanvin, Haute Couture '92 s/s, p. 24.
- 34) Christian Lacroix, Haute Couture '92 s/s, p. 68.
- 35) Guy Laroche, Collezioni '87, p. 25.
- 36) Antony Price, Gap '89 s/s, London-2.
- 37) Martin Sitbon, Collections '91 '92 a/w, Paris-11.
- 38) Hiromichi Nakano. Collections '89 '90 a/w, Tokyo -4.
- 39) Gianni Versace, Haute Couture '92 s/s, p. 52.
- 40) Chanel, Collections '91 '92 a/w, Paris-10.
- 41) Thierry Mugler, Collections '91'92 a/w, Paris-4.
- 42) Jean-Paul Gaultier, Collections '91 '92 a/w, Paris-1.
- 43) Thierry Mugler, Collections '91 '92 a/w, Paris-4.
- 44) Thierry Mugler, Collections '91 '92 a/w, Paris-4.
- 45) Thierry Mugler, Collections '91 '92 a/w, Paris-4.
- 46) 앙드레 꾸레쥬, “미니로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표현”, 멋 : 1984년 9월호, p. 180.
- 47) 이신아, “팝아트와 복식”, 서울여대 석사논문, 1989, p. 26.
- 48) 몽경희, “21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p. 68.